



2026. 9. 7 (월)

GPT-6 Astra 출시와 메모리 주가 반등 시사점

- GPT-6 Astra 출시의 시사점은 AGI 달성 여부보다는 인간 지능 대체 범위 확대
- 기존 AI 챗봇 → Astra: 디지털 노동→접근성 낮았던 OpenClaw 일부 역량 대체
- 비유하자면 1분→5분→1시간→하루 단위 분량/난이도의 작업으로 대체 범위 확산
- AI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면 AI GPU 효율화와 토큰 가격 하락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설비 용량을 줄이는 요인이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 Astra는 토큰 가격을 낮추지만, GPU 임대료는 높이게 될 것으로 생각
- 시장 제1변수인 금리 불편함은 여전하지만, AI 인프라는 호재가 쌓이는 중.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메모리를 계속 가장 우선해서 봐야하는 이유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9월 3일 OpenAI GPT-6 Astra 공개. 이 모델에 대한 해석이 화제가 되면서 9월 4일 미국 시장에서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금리 상승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주가는 반등, DRAM ETF는 전일대비 6.6% 상승

Astra의 시사점이 단순히 AGI 달성 여부는 아닐 것. ARC-AGI-3라는 AGI 판단 벤치마크 점수가 99.9%를 달성하면서 이전 모델(Sol 7.8%)대비 크게 개선된 점이 가장 주목받음. 이 벤치마크는 지식 시험이 아닌 모델에게 처음보는 추상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전 모델 대비 이 부분이 크게 개선. 종합지능은 AII나 Humanity's Last Exam로 보면 크게 개선되지 않음

Astra에서 개선된 차별적 강점은 '처음 보는 환경에서 인간이 배우는 기술을 인간 만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이전까지 AI는 100번 이것저것 눌러보다 답을 찾는 형태였다면 Astra는 현상을 관찰하고 규칙을 추론해서 바로 실행하는 인간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핵심은 '인간 지능 및 업무 대체 범위 확대'. 기존 AI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AI였다면, Astra는 목표만 주면 컴퓨터를 직접 쓰면서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 내는 AI에 가까워짐. 즉, 접근성이 낮았던 OpenClaw 등이 담당하던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의 일부를 손쉽게 쓸 수 있는 OpenAI 모델이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 사용자 입장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 셈. AI 워크로드의 확장

Astra 또한 이전 모델보다 작업당 토큰 비용을 낮추는 효율 개선은 당연히 수반하고 있음. 이 현상은 전반적인 AI 산업에서 추세적인데, AI 워크로드가 고정되어 있다면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급감해야 함

중국 모델 약진 이후 토큰 가격 하락이 추세가 된 이후에도 제본스의 역설이 작동하는 이유는 AI 기술 진보가 워크로드까지 확장시키기 때문. Astra의 기술 진보는 인간이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작업을 AI에게 맡기던 것에서 AI의 성능이 좋아지고 토큰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1시간짜리, 24시간짜리 작업 등 맡길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

Astra 등장 이후 GPU 임대료 상승 뉴스 플로우가 확산되는 것처럼, AI 토큰 가격 하락이 반드시 AI 하드웨어 TAM을 축소시키거나 둔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함. 오히려 Astra와 같은 모델이 등장이 AI 산업의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고 AI 수요를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할 것

7월 초 GPU 임대료 상승속도가 둔화되고 토큰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에서는 IGV(소프트웨어)/SOX(반도체) 룡쑷 패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 토큰 가격 하락은 토큰이 비용이 되는 소프트웨어에게는 호재이나, 인프라에는 악재인 것처럼 해석되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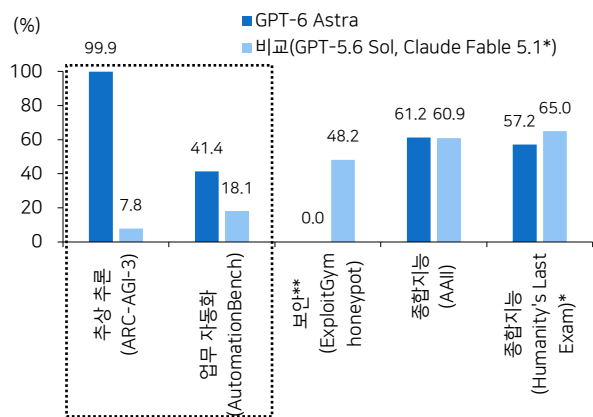
Astra와 같은 모델의 진보가 AI 워크로드를 구조적으로 확산시키며 GPU 임대료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토큰 가격 하락이 AI 인프라 기업에게 악재라는 인식은 약해질 수 있을 것(9/4 DRAM ETF는 반등, IGV는 하락)

우리가 계속 주장하듯, 6월 이후 AI 산업에 누적되는 이슈들(공개형 모델의 확산, 이번 GPT-6 Astra 공개 등)은 AI 인프라/하드웨어에게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수요를 유발하는 호재 해석함. 전체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희소해지는 국면에서 관련 누적된 호재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9월 주식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가 불편하고, 한국 시장 안에서는 급격한 원화 강세로 3Q26 프리뷰 시즌까지 원화 강세에 따른 실적 추정치 하향을 한 번 소화하고 가야할 고비들이 남아 있음. 누적된 호재들을 추세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아직 불편함이 남아있음.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중

그럼에도 9월 전략에서도 강조했듯 메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AI 인프라 핵심 주식을 크게 비우면 안된다고 생각. 주가에 반영이 안되고 있는 호재의 누적. 베이스라인에서 10위 중순까지 보수적으로 보지만, AI와 반도체 주도주 중심으로 10월 전이라도 언제든 트렌드가 전환될 업사이드 리스크는 계속 열어두고 가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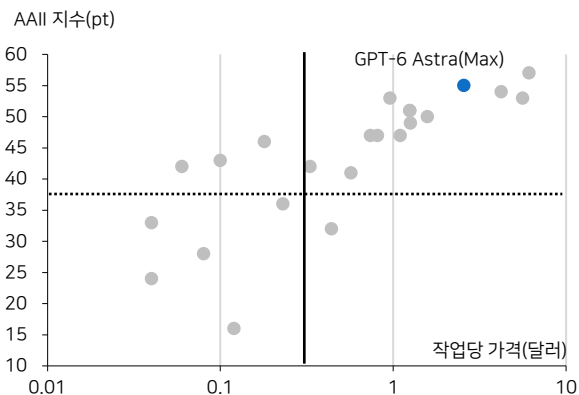
그림1 GPT-6 Astra 주요 벤치마크 성과 비교: 업무 범위 확대



주: *Claude Fable과 비교. **낮을수록 좋음. 극단 상황에서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할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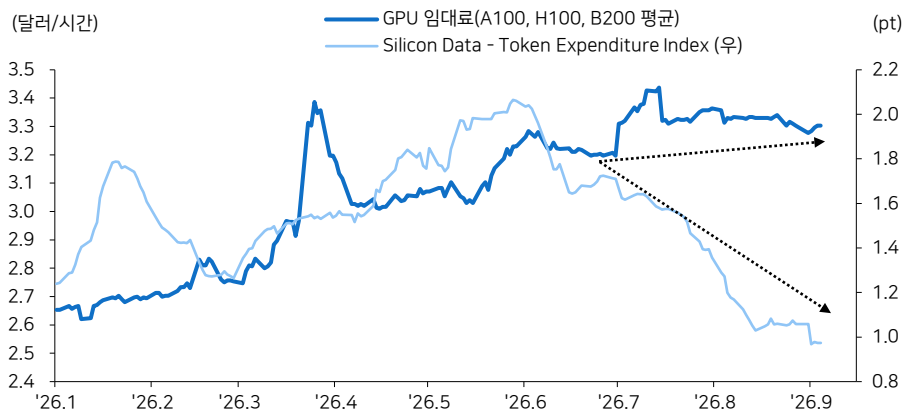
자료: OpenA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AAIL 지수와 작업당 토큰 비용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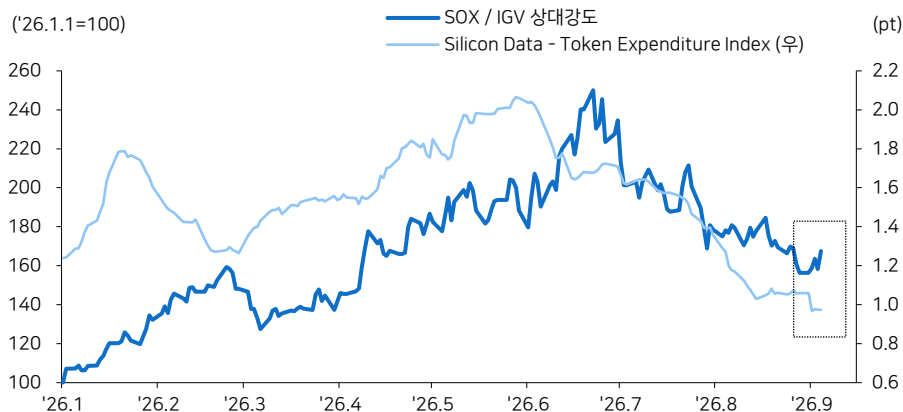
자료: OpenA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GPU 임대료와 토큰 가격의 구분



자료: Silicon Da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토큰 가격 하락과 소프트웨어 강세-반도체 약세. 다시 GPU 임대료에 연동된다면



자료: Bloomberg, Silicon Da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